

설날 舊正

설날의 추억

어느 철부지 소년의
설날 일대기

설날의 역사

박해받던 설날을 아십니까?

색채심리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재미삼아 살펴본
파란색과 빨간색

추천 앱

설 명절에 유용한
아이패드 어플

추천 레시피

설날 맞이 특별 레시피
아이들과 만두국 만들기

추천 레시피

남은 명절 음식 활용법

추천 영화

2015 설연휴
극장가 집중탐구

추천 전통놀이

설날 조카전쟁 대응법
: 전통놀이

추천 여행지

설날에 가 볼 만한
수도권 나들이 장소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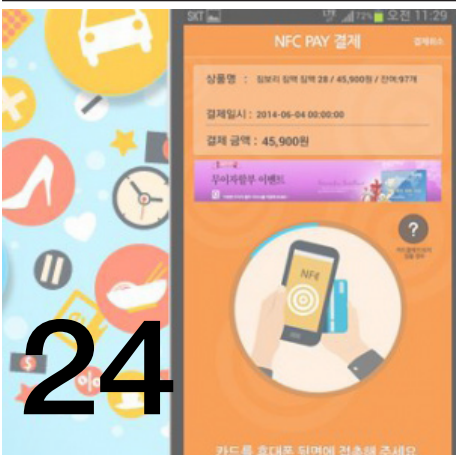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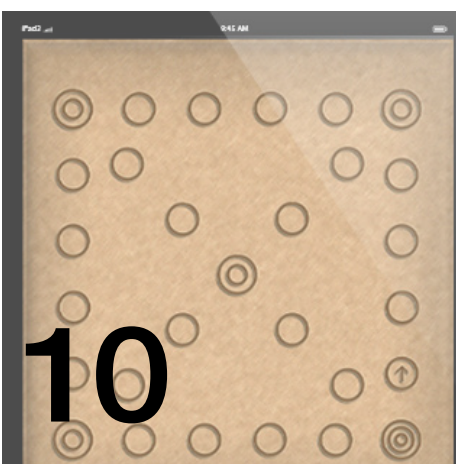
- 05 [설날의 추억] 어느 철부지 소년의 설날 일대기
- 06 [설날의 역사] 박해받던 설날을 아십니까?
- 08 [색채심리]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재미 삼아 살펴본 파란색과 빨간색
- 10 [추천 앱] 설 명절에 유용한 아이패드 어플
- 12 [추천 레시피] 설날 맛이 특별 레시피 아이들과 만두국 만들기
- 14 [추천 레시피] 남은 명절 음식 활용법
- 15 [추천 영화] 2015 설연휴 극장가 집중탐구
- 16 [추천 전통놀이] 설날 조카전쟁 대응법 : 전통놀이
- 18 [추천 여행지] 설날에 가 볼 만한 수도권 나들이 장소



NTS

FEBRUARY
2015

- 22 [경제] 종신보험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떼는 보험사는?
- 23 [경제] 2009년보다 권리금 더 떨어진 업종은?
- 24 [금융/IT] 주목받는 핀테크(fintech)산업
- 25 [IT] 사운드코닉 1 블루투스 스피커
- 26 [문화] 키덜트 & 하비 엑스포 현장 취재기
- 27 [리빙] 난방기 가동 후 피부관리 주의사항
- 28 [연예] 하지나 한지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 29 [TOON] 보드톡스 툰 : 주식정보편



대표 고진석
발행인/편집인 정원훈
기자 김소연, 김태호, 남상열, 앤서니 김, 이희재, 전성민, 정주형
편집 김주은
필진 김성중, 김동엽, 문성호, 박성준, 배기성, 유광중, 윤명진, 이상규, 임곤태, 장대웅, 정현욱, 정상균, Jay Lee
등록번호 서울 아02673
등록일 2013년 5월 29일
발행처 (주)텐스페이스
전화 070-7168-1111
팩스 02-2168-9887
홈페이지 www.koreanjournal.net

진정한 을미년을 맞이하다

벌써 2월입니다. 또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월간으로 저희 코리언저널의 업데이트 정책을 변경하였기에 2015년 들어서는 두 번째로 인사드리네요.

편집회의 시 월간으로 발행하다보니 1월호 웹진과 설날이 있는 2월호 웹진을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편집회의를 진행하며, 1월이 2015년의 예측과 전망에 주목했다면, 이번 2월은 설날이라는 명절 자체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취재과정을 거치면서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설날의 의미였는데요. ‘설날’은 한자로 원일(元日) 즉 으뜸되는 날, 세수(歲首) 즉 새해의 머리가 된다고 씁니다. 즉 1년의 첫째 되는 날이란 뜻입니다. 교육학자 손인수는 “설은 새해의 첫머리며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다. 설은 묵은 해를 떨쳐 버리고 새로 맞이하는 한해의 첫 날이며 첫머리다. 그래서 설이라는 말은 ‘설다’, ‘낫 설다’ 등의 ‘설’이라는 어간에서 나온 듯하다. 설의 설다음은 그것이 ‘처음 날’, “비롯함의 날’이라는데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코리언저널 2월호를 ‘명절로서의 설날’에 대한 테마로 정하면서, 그 테마의 시작을 우리에게 누구나 있는 설날 추억을 제일 먼저 되새겨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는 현재는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 말하지만, 수많은 박해와 수난 그리고, 변천사를 있었음에 주목하여 이것에 대해 살펴보고, 푸른 양(靑羊)의 해이기에 색채심리학 관점에서 파란색을 먼저 살펴보고, 가장 대비되는 빨간색을 살펴보는 기사를 재미삼아 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사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주목하여 설날에 유용한 아이폰 어플을 소개하였고,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요리법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과 남은 음식을 활용법을 실었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빠질 수 없는 영화들에 대한 기사,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통놀이들과 수도권 나들이 장소들을 추천하였습니다.

그 뒤에 저희 온라인 기사 중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면 유익한 기사들을 소개하였는데요.

경제기사 코너에서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분석한 종신보험 사업비를 많이 떼는 보험사에 대한 분석기사, 그리고, 금융위기였던 2009년보다 권리금이 더 떨어진 업종에 대한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IT코너에서는 금융과 IT와 결합된 핀테크 사업의 소개, 추천할 만한 블루투스 스피커인 사운드코닉을 소개하였고, 리빙 코너에서는 2월이라 난방기 사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피부관리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난방기 가동 후 피부관리 주의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예코너에서는 ‘하이드 지킬 나’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지민 기사를 뽑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말에 출시될 보드톡스의 소개 웹툰 중 주식정보편을 재미삼아 보시라고 실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을미년 푸른 양의 해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운수대통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리언저널 일동

어느 철부지 소년의 설날 일대기

클남상열 기자



10대 한 철부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설날만 되면 세뱃돈 받을 생각에 마음이 잔뜩 부풀어 있었다. 한 술 더 떠 이미 마음속에는 위시리스트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당시에는 보물섬이라는 월간 만화책이 있었다. 1순위는 보물섬이었고, 2순위는 오토바이 장난감이었다. 설날 아침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큰집에 가면 일단 전체적으로 스캔을 뜬다. '오늘 오신 친척분들이 14명이니까... 우와 14,000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군.' 게다가 종종 크게 5천원을 주는 분도 계시니 플러스알파가 되기에 충분하다. 차례를 지내고 드디어 세배타임. 최대한 정성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세배를 드린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몇몇 친척분께서 5천원을 꺼내신다. 갑자기나의 등 뒤로 싸늘함이 느껴진다. 아— 우리 어머니가 복병이었다니... 나의 소중한 세뱃돈은 잠시 맡겨 둔다는 명목 하나로 고스란히 어머니의 주머니 속에 들어갔고 그 뒤로 이자도 받지 못한 채. 10대를 보내고 있었다.



20대 그 철부지 소년은 어느새 성장을 해 군대에 입대했다. 군대에서의 명절이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한다. 뭐 아침 식사로 떡국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기분만큼은 우울하다. 그래도 연휴 동안에는 훈련이 없다는 위안을 삼고 딱딱한 내무반에서 설날을 보낸다. 명절이면 늘~ TV에 나오는 성룡아저씨의 무술영화와 외국인 노래자랑. 설날이라 그런지 가족 면회가 끊이지 않는다. 정병장 면회, 한상병 면회, 박일병 면회... 점점 내부반이 썰렁해진다. 고참이 줄어들면 그만큼 편해지지만 왠지 마음 한켠은 무겁다. 그러던 찰나에 내무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방송. '남이병 면회' 그렇다. 어머니께서 설날 서프라이즈 선물로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면회를 온 것이다. 각종 전, 산적, 나물 등 차례음식을 고스란히 싸서 면회를 오신 것이다. 아직까지도 나의 설날 최고의 선물은 면회 오신 어머니의 얼굴이지 싶다. 면회가 끝나고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신다. 그 철부지 소년은 하염없이 어머니의 뒷모습만 바라본다. 텔레파시가 통한 것일까?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빨리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신다. 그제서야 그 소년은 내무반으로 들어가 남은 연휴를 의미 없이 보낸다. 그나저나 10대 때 어머니께 맡겨둔 세뱃돈은 어찌 된 것일까?



30대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 졸업을 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한 그 철부지 소년은 어느새 30대가 되어 결혼을 했다. 늘 혼자였던 설날을 이제는 둘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 설날 선물도 두 개, 용돈도 더벌, 찾아가는 곳도 두 곳... 나눔의 미학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아내와 함께 하는 설날은 기쁘고 설레이기까지 하다. 소년이 성장하고 결혼을 하는 동안 그 소년에게는 조카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세뱃돈을 받는 입장에서 세뱃돈을 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오천원? 만원? 아--- 갈 등된다. 자신은 분명히 천원 한 장으로 행복해 했거늘... 본전 생각이 간절하다. 만원으로 결정하는 대신 조카들이 세배하는 장면을 매의 눈으로 쳐다본다. 행여 세배의 흐트러진 모습이 보인다면 가차없이 다 시시킨다. 그 지적질로 소년은 나름대로의 본전 생각을 지우고야만 한다. 역시 어른은 불리하다.



40대 어느새 소년에게는 아들과 딸이 생겼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나중에 차례를 지내 줄 녀석이 생겨서 기뻐고, 딸이 태어날 때는 그냥 딸 자체로 행복했다. 30대 때와는 달리 설날 아침 풍경은 꽤 분주하다. 아이들 챙기랴~ 차례음식 차리랴~ 또... 세뱃돈... 세뱃돈 챙기랴... 그 소년이 그랬듯. 오누이들도 나름대로의 위시리스트를 마음속에 새긴다. 아들은 세뱃돈으로 요괴워치 장난감을, 딸은 세뱃돈과 용돈을 합쳐 커다란 인형을 산다고 한다. '아이고 의미없다~~' 그리고 그 오누이들의 등 뒤에선 아빠가 된 그 소년이 알 수 없는 미소로 서 있었다.

그 철부지 소년의 설날은 그렇게 또 다가오고 있다.

박해 받던 설날을 아십니까?

1895년 음력 설날이 폐지되다.

을미사변으로 다시 들어선 김홍집내각이 아관파천으로 무너지기 직전인 1896년 2월까지 추진한 일련의 개혁인 을미개혁으로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이후 1910년 일제의 강점 이후 민족혼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수천년 동안 관습화 된 음력설을 없애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고 한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신정(新正)', '구정(舊正)'이라는 일본식 한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양력 설인 신정(新正)만을 지키게 만들었으며, 음력 설에는 떡방아간을 못 돌리게 하고 설날 아침 세배를 다니는 사람들의 옷에 검은 물이 든 물총을 쏘기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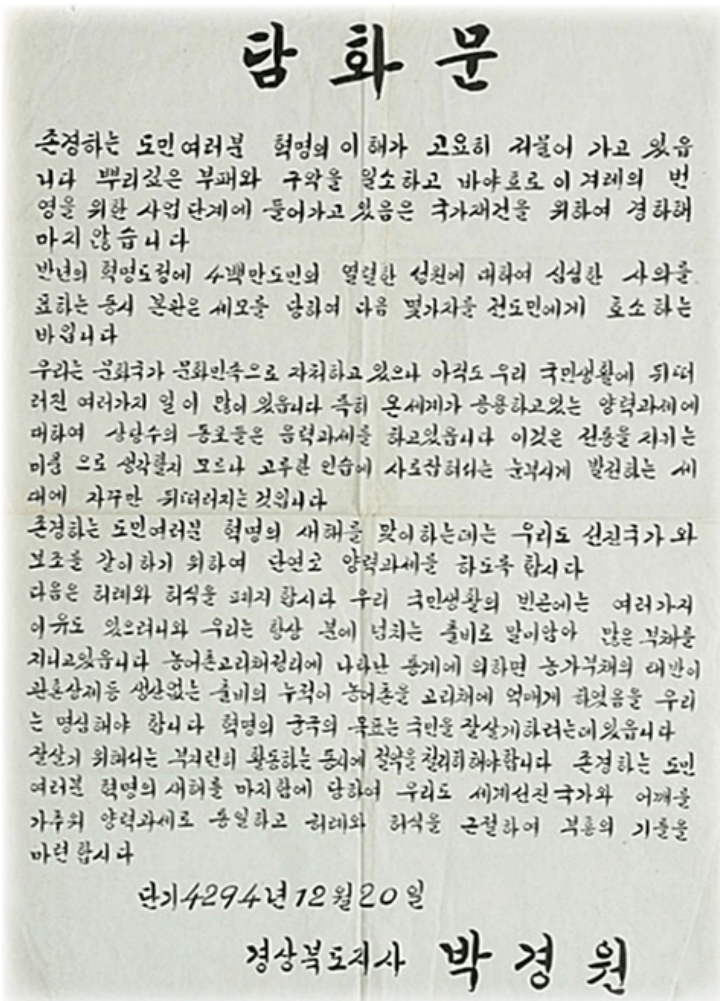
50년대 음력 설날이 계속 박대 받다.

이승만 정권시절 대통령령 제124호(1949. 6. 4)로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로 나누고, 양력설인 1월 1일, 2일, 3일은 국경일로 규정하였다. 이후 1954년에는 음력 설날을 강력하게 억제할 것을 지시했는데, 음력 설날을 폐습적인 이중과세(二重過歲. 이중으로 해맞이를 하는 일)로 간주, 시간소비와 물자낭비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양력설만을 장려하였다.

60~70년대 개발 논리로 무시 당하다.

5.16 쿠데타 이후도 역시 경제논리로 '양력 1월 1일'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로 쿠데타 이후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발표된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담화문의 내용에도 음력과세를 전통적인 미풍이 아니라 고루한 인습에서로 잡힌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약 등을 위해 양력설만을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이하고 있었다. 즉 박정희 정권 시절도 '음력 1월 1일'은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개발논리라 할 수 있다. 즉 '음력 1월 1일'은 산업경제를 일으키는 것과는 역행하는 것이라 반대했던 것이다. 이후 1975년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이중과세에 대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두 번 설을 쇠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던 것을 보면, 계속 무시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60~70년대의 분위기는 80대 초반까지 연결된다. 1981년 홍보 만화를 보면, 신정과 구정을 양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신정(양력 설날)이 '근대화'의 직접적인 체험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구정에 대해서는 작은 길로 표시하여 대조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 경상북도지사의 담화문 (1961년, 자료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소장)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의 첫 날을 기리는 명절이다. 지금 현재는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민족의 대명절이 되었지만, 과거 80년 동안은 수난의 역사와 냉대와 압제를 당했었다. 이러한 설날의 박해 및 변천사를 살펴보자. 본 기사에 등장한 사진들은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사진을 위주로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글 정주형 기자



▲ 차례대로 구정(음력 설날)의 서울역 모습, 음력 설날 서울역 광장의 모습, 양력설(신정)을 강조한 만화 (1968년, 1977년, 1981년 자료: 국가기록원)

1985년 1월 21일 : ‘음력 1월 1일’, 민속의 날로 부활하다

1985년에 이르러서야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통령령 제11615호(1985. 1.21)로 공포된 공휴일의 개정 규정에 보면,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로 하루를 공휴일로 한다는 것이다. 개정 사유는 “전통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경호사상 고양”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후 KBS 주관으로 처음으로 맞는 ‘민속의 날’을 기념한 행사를 했는데, 이를 계기로 사회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사 장소는 여의도 광장이며, 행사 내용은 경연행사, 자유참가행사, 방송행사, 지방행사, 부대행사를 열었다.

1989년 2월 1일 : ‘음력 1월 1일’ 설날로 이름이 바뀌며 연휴가 되다.

1989년 대통령령 제12616호(1989. 2. 1)로 민속의 날로 정했던 구정을 설날로 개명했으며, 1월 1일과 2일을 연휴로 하고, 설날은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등 사흘을 공휴일로 한다는 것이다. 개정 사유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고향을 찾는 국민의 편의 도모”를 내세웠다.

1998년 : 양력 1월 1일이 설날의 이름을 잃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이후 대통령령 제15939호(1998.12.18.)로 ‘양력 1월 1일’만을 공휴일로 했는데, 개정 사유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이중과세의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1월 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양력 1월1일’이 ‘설’이라는 이름을 잃게 됐는데. IMF 이후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였다.

개화기와 일제시대를 거친 100여년의 설날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많은 박해 속에서 민족의 대명절로 다시 자리잡게 된 설날, 그의 미를 되새기며, 행복하게 보내자.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를 맞아

재미삼아 살펴 본 파란색과 빨간색

2015년이 벌써 40여일이 흘렀다. 흔히들 을미년이라 표현한다면, 음력으로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제 진정한 을미년이 다가온다 할 수 있다. 을미년은 역학적으로 보면 청(靑)의 기운이 깃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주목하면, 파란색 즉 푸를 청(靑)은 진취적이고 직선적이고 활동성이 있는 속성을 가졌다고 말한다. 본 기사에서는 파란색에 주목하여, 색깔이 주는 영향 즉, 색채심리학적 관점을 위주로 파란색을 바라보며, 이것과 대비되는 빨간색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글 정주형 기자

먼저 색채심리학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색채심리학(color psychology)은 색채와 관련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생리학, 미학, 인문학, 사회학 등의 여러 분야들과 관련된다. 색채심리학에서는 색채를 지각하는 과정에서부터 색채에 대하여 가지는 인상, 조화감 등 여러 문제를 다루는데, 특히 색채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에서 출발하여 인간이 색채에 대하여 갖는 감성적인 면과 미적반응, 그리고 색채의 생리적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는 분야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기호와 집단의 기호 그리고 역사성과 지역성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연구한다.

이 중 청양(靑羊)의 해이므로 파란색을 먼저 살펴보자.

파란색은 신뢰할 수 있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와 하늘의 색인 파란색은 우리에게 가장 노출이 많은 색이라 할 수 있다. 색채심리학에서는 '파란색이 안정을 주고 인체를 침착하게 하는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준다'라고 한다. 연상단어는 젊은, 차가움, 명상, 심원, 성실, 영원, 냉정, 냉혹, 추위, 바다, 호수 등이며, 눈, 신경의 피로회복, 염증, 침정제, 맥박저하, 피서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즉 침착하게 하고, 진정시키며, 차갑고, 직관력을 도와주는 색인 것이다.

파란색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매력을 가진, 단지 한쪽 성에만 국한되지 않은 색이며, 재미있는 사실은 부영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색이며, 모기에게는 다른 색의 두 배 정도로 파란색에 매력을 느낀다. 또한 사람들은 종종 파란색 방에서 더 생산적이다.

국가별로 선호하는 색을 알아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색으로 뽑혀 왔다. 한국색채연구소(2004)가 전국 약 1,2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제5차 대국민 색채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파란색의 선호가 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록, 빨강, 남색, 노랑의 순으로 선호한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 조사와 비교했을 때, 녹색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빨간색의 선호가 꾸준히 상승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색을 좋아하는 나라들 중 아시아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등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파란색을 진실, 번영의 상징으로 본다.



대국민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기본 7색의 잠재적 느낌 선호색

개요 색명	5차(2004)	4차(97.11)	3차(89.9)	2차(84.4)	1차(80.11)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파랑	1	1	2	2	3
초록	2	2	1	1	1
빨강	6	3	3	7	6
남색	3	4	4	5	5
노랑	5	5	5	4	4
보라	4	6	6	3	2
주황	7	7	7	6	7

자료원 :한국색채연구소

이와 가장 대비되는 **빨간색**을 색채심리학 관점에서 알아보자.

빨간색은 각성제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주목을 끌고 강조하기 위하여 빨간색을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특정 요소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연상되는 단어는 자극적, 정열, 흥분, 애정, 위험, 혁명, 피, 분노, 더위, 열, 건조, 일출, 저녁노을 등이다. 빈혈이나 노쇠, 긴급이나 정지의 효과가 있다는데, 다시 말해서 열정을 높이며,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혈압과 호흡, 심장 박동 수, 그리고 맥박 수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행동과 자신감을 고무시키며,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한다.

또한 빛 중에서 가장 긴 파장을 가지며, 무지개의 가장 바깥쪽에 있으며, 해질 무렵에 보이지 않게 될 첫 번째 색이다. 풍수에서는 거주자에게 번영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집의 첫 번째 문에 빨강을 칠하는 것을 권장한다. 벌은 빨간 색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밝은 색은 모두 볼 수 있다 한다. 장미같은 빨간 꽃은 보통 벌을 제외한 새, 나비, 박쥐 그리고 바람에 의해 수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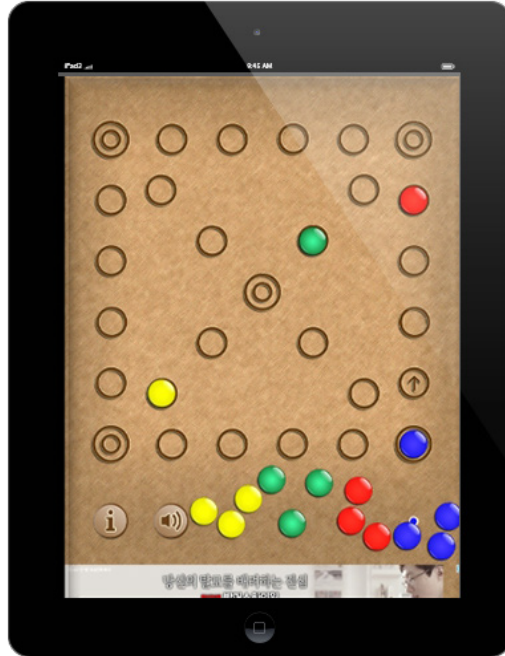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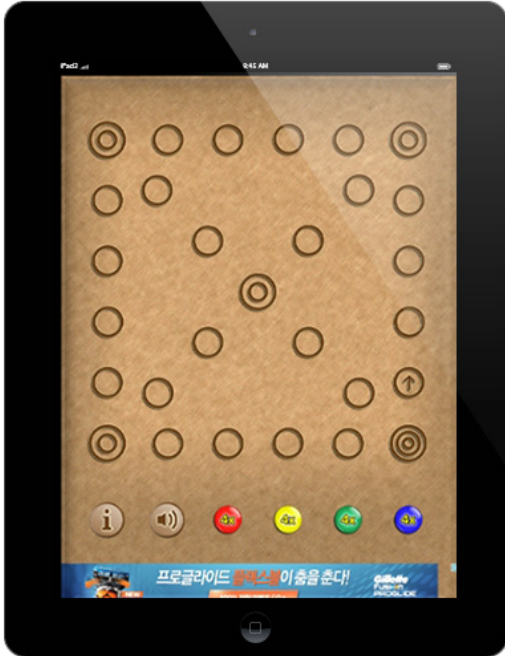
빨간색의 선호도를 국가별로 본다면, 아시아에서는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홍콩 등이 좋아하며, 중동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집트 등이 선호한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적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러시아의 혁명을 상징하며 러시아어에서 빨간색은 '아름답다'는 의미로도 표현한다. 루마니아의 경우 적색이나 핑크색을 낙천적으로 바라본다. 또한 영국에서는 태양을 상징한다고 한다. 빨간색을 기피하는 나라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등이 있다.

덧붙여 빨간색과 파란색이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국기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박영효가 처음 사용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는 국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조선책략에 나와 있는데,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글과 함께 4개의 발을 가진 용모양을 제시해 놓으면서 비롯되었다 한다. 그 후 고종이 임금을 뜻하는 붉은 바탕(양, 위, 존귀, 왼쪽을 뜻함)에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음, 아래, 희망, 오른쪽을 뜻함)과 백성을 뜻하는 흰색(우리 백의민족의 순결성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성을 표상함)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 넣게 하여 군민일체를 나타내려 하였으나, 일본의 국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김홍집이 “반항반청의 태극 무늬로 하고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리면 일본 국기와 구분할 수 있다 하여, 이후 1883년 3월 6일 태극기가 국기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재미삼아 색깔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 기사를 읽는 독자 모두가 파란색이 가진 상징인 번영처럼 번영하는 올미년이 되길 소망해본다.

설 명절에 유용한 아이패드 어플

설 명절 연휴가 얼마남지 않았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최소 5일 이상 쉴 수 있는 꿀맛같은 연휴가 될 예정이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꿀맛이 될지, 아님 기억하기도 싫을 연휴가 될지 판가름 날 거 같은데 그래서 꿀맛같은 설 명절 연휴를 위한 동반자! 아이패드 어플을 소개하려 한다. 명절에 유용한 어플들만 엄선에 엄선을 거듭 했으니 입맛 대로 골라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권장한다. 글 남상열 기자



1

윷놀이판

카테고리: 게임
크기: 14.7 MB
다운로드: 무료

설 명절에 가장 많이 하는 놀이는 뭐니뭐니해도 윷놀이야 아닐까? 보통 집에서 윷놀이를 하면 큰 달력 뒷면에 대충 윷판을 그려서 바둑알 혹은 성냥개비로 말을 사용하는데 이젠 윷놀이도 스마트하게 즐기자!! 윷은 직접 던져야 제맛!! 윷은 직접 던지고 말판은 아이패드용 윷놀이 말판으로 더욱 재미있는 윷놀이를 즐겨보자.



2

썸핏 터보 트레이너

카테고리: 게임
크기: 14.7 MB
다운로드: 무료

기름진 고칼로리의 명절 음식. 살 찢까봐 먹기는 겁나고 또 굶자니 왠지 서럽고.. 설 명절이야말로 다이어트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썸핏 터보 트레이너 어플과 함께라면 명절 음식도 적당히 먹고 몸무게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썸핏 터보 트레이너는 저강도 운동 부터 시작을 해서 12주 동안의 운동량을 조절해 준다. 전문 트레이너들의 도움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하니 더욱 믿음이 가는 다이어트 어플이 아닐 수 없다.

3

퐁! 인기캐릭터 액션스티커북

카테고리: 교육
크기: 19.4 MB
다운로드: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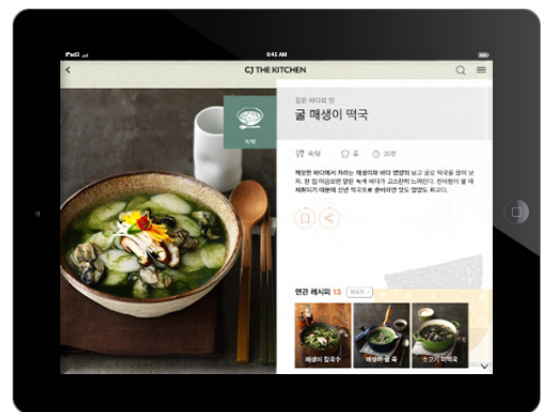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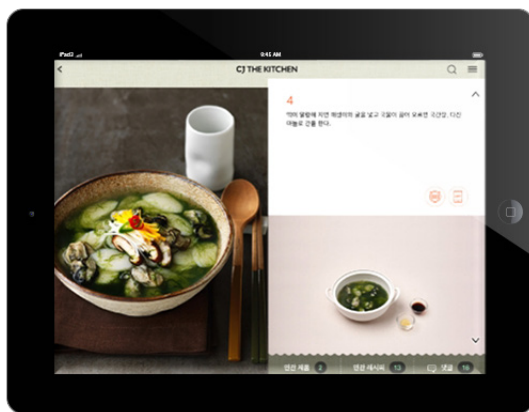


꽉 막힌 귀성길 고속도로...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이번에는 차 안에서 울고 보챌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어플을 준비했다. 퐁! 인기캐릭터 액션스티커북은 보고 듣고 만지는 유아놀이 어플로서 사용법이 간단해 아이 혼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6공간과 30가지 아이템. 그리고 터치하면 살아 움직이는 스티커는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4

CJ the Kitchen 나만의 맞춤 레시피 추천

카테고리: 요리
크기: 69.2 MB
다운로드: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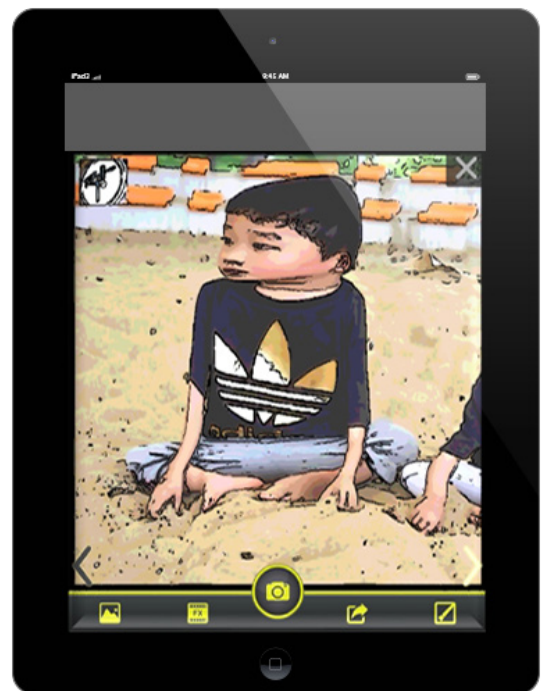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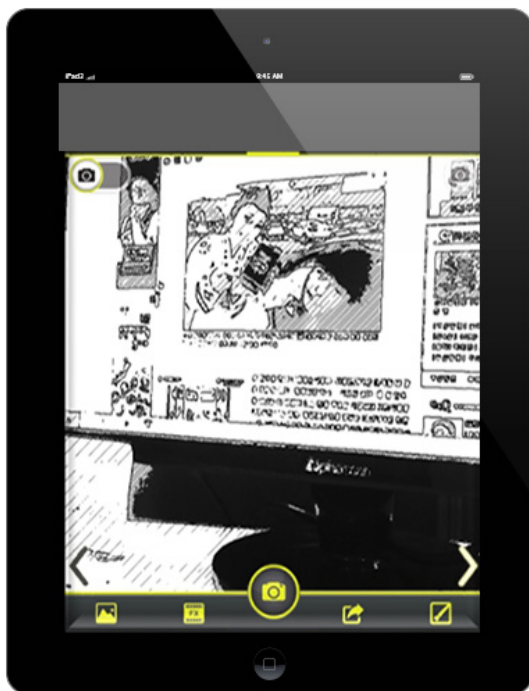


명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바로 요리이다. 앞으로는 명절 요리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CJ the Kitchen 어플로 일급 요리사가 되어보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만들기도 쉬운 레시피가 가득하다. CJ the Kitchen 카테고리에는 설날 음식 레시피가 별도로 있어서 이용하기 더욱 편리한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UI/UX가 눈에 띄고, 다양한 이벤트는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5

웹툰 카메라

카테고리: 사진 및 비디오
크기: 14.8 MB
다운로드: 무료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기억하고자 사진을 많이 찍는다. 이제는 더욱 특별하게 담아보는 건 어떨까? 웹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웹툰처럼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직접 찍을 수도 있고, 찍어 놓은 사진을 불러와서 웹툰처럼 편집도 가능하다. 내 사진을 웹툰처럼 바꿔주는 특별한 카메라 웹툰 카메라이다.

설날맛이 특별 레시피 아이들과 만두국 만들기

황금같은 설 연휴가 코 앞에 다가왔다. 설날에는 특히 먹을 음식이 참으로 많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설날하면 뭐니뭐니해도 만두국이 아닐까? 요즘에는 시중에서 쉽게 만두를 구입해서 끓여 먹을 수도 있지만 참다운 맛은 직접 만들어서 끓여먹어야 하는 법.

아이들과 쉽게 만두를 만들 수 있는 특별 레시피를 준비했다. 설날에 먹는 만두의 맛은 물론 함께 만드는 재미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꼭 잡아보길 바란다.

글 남상열 기자

Recipe

재료 check

□ 숙주나물 □ 시금치 □ 두부 □ 당면 □ 돼지고기 □ 김치 □ 계란



1

우선 숙주나물과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너무 푹 삶았을 경우에는 식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살짝만 데치고 찬물에 씻어두면 된다.



2

김치를 잘게 썬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먹을 만두라면 김치를 물에 씻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치는 당연히 김장김치로...

3

두부를 으개는 작업은 아이들에게 맡겨 두자. 평상시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놀이이니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한다. 또 으개면서 즉석에서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4

만두소에 들어갈 당면을 삶아서 차가운 물로 식힌 뒤, 가위로 잘게 썬다. 당면 썰기 역시 아이들에게 맡기면 참 좋아한다.

tip



혹시 만두피가 남으면 가위로 미술놀이를 시켜보자. 잘게 썰어진 만두피는 만두국에 같이 넣고 끓여도 맛이 기가 막하다.



5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대한 두부의 물기를 빼야한다. 양파망 같은 그물망에 두부를 넣고 무거운 것을 올려 놓으면 자연스럽게 물기가 빠진다.



6

지금까지 준비된 재료에 돼지고기를 추가한다. 돼지고기는 정육점에서 갈아서 구입하면 만들기 훨씬 수월하다. 넓은 양재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다시 가위로 잘게 썬다.



7

만두피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물론 직접 반죽해서 만들면 더욱 의미있고 맛있겠지만, 손이 너무 많이 가므로 만두피를 사서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8

이제 도란도란 아이들과 만두소를 채우면 된다. 당연히 아이들은 예쁘게 만두를 빚는 건 힘든 일이다.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서 만들 수 있도록 유도 해주자



9

크기는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기 주먹만하게 만드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마무리를 동그랗게 하면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더 편하다.



10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다. 가정에 사골이 있으면 사골국물에 끓이면 더욱 맛있고, 소고기를 넣고 끓여도 맛이 일품이다. 나중에 김가루로 데코레이션! 끝

남은 명절 음식 활용법

설날이다. 민족의대 명절 설날이 기다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맛있는 명절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고기, 갈비, 산적부터 전과 생선, 각종 나물과 과일들이 푸짐하게 차려진 차례상과 빠질 수 없는 떡국은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명절이 지나고 한 집에 모였던 친척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냉장고 속에는 음식을 만들고 남은 재료부터 먹다 남은 음식들이 가득하다. 게다가 금새 만들어 모두가 함께 먹을 때는 맛있던 음식들이 왜 이리도 맛없어 보이는지... 명절 차례상을 차려본 주부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런 모든 이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코리언저널에서는 명절 특집 남은 식재료 활용하기 비법을 소개 해본다. 글 앤서니 김 기자



1 남은 생선살로 만드는 수제 어묵

생선류는 일단 살을 잘 발라내어 어묵을 만들면 좋다. 발라낸 살을 믹서로 갈아 당근 양파, 파등과 잘게 다져 섞고 전분가루를 적당히 넣어 반죽을 만든다.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후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어 기름에 튀겨주면 끝. 튀김이 부담스럽다면 후라이팬에 굽거나 찌도 좋다. 만들기도 쉽고 영양만점 어묵이 완성된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간식으로 좋고 어른들 안주로도 일품인 수제 어묵 되시겠다.



2 생선전 조리

생선전이 많이 남아 처치가 곤란하다면 생선전 조리를 해보자. 냄비에 무와 감자를 널찍하게 썰어 깔고, 그 위에 생선전을 올린 다음 기본 양념장을 사이사이 끼얹어 주고 조리면~ 뽀!~~ 끝!



3 처치곤란 황태포로 만드는 황태 구이

황태포로 국을 끓여 먹는 사람들도 많지만 맛나는 황태구이 비법을 전수 하도록 하겠다. 황태포를 마른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재빨리 먼지만 닦아낸다고 생각하고 씻어낸다. 이때 씻기 전에 대가리 부분은 떼어내어 잘 보관한다. 곧 쓸 일이 생기니 일단 보관하도록 하자. 물에 불린 상태에서 씻어내면 고소한 맛은 다 빠져나가고 비릿한 맛만 남기 때문이다. 황태를 불릴 때도 물 속에 담가 놓지 말고 분무기로 살살살 뿌려가며 불려준다. 이렇게 불려준 황태에 간장과 참기름을 1:1로 섞은 유장을 골고루 입혀준다. 그리고 기본 양념장에 재워 약한 불에서 석쇠를 이용해 타지 않게 구워준다



4 남은 음식 처리의 결정판 잡탕찌개!

잡탕찌개는 남은 국, 전, 나물 등 각종 잔반을 한 번에 처리해버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우선 냄비에 적당히 물을 넣고 아까 위에 황태구이를 만들 때 떼어놓은 황태 대가리로 육수를 우린다. 이 육수에 고추장을 한 손가락정도 넣고 남은 국, 전, 나물 등을 때려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면 끝이다.

기본 양념장 만드는법

간장2큰술, 고추장1/2큰술, 청주1큰술, 고춧가루1큰술, 설탕1/2큰술
다진마늘1작은술, 후추

2015 설연휴 극장가 집중탐구!

설날 연휴 극장가에는 어김없이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을 앞두고 있어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즈의 마법사>, <스폰지밥3D>, <웰컴, 삼바>, <엘로우버드> 그리고 <모데카이>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로 관객들의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 그 중 설날 연휴 극장가를 장악할 영화들을 집어 봤다. 글 앤서니 김 기자

오즈의 마법사 돌아온 도로시3D



스폰지밥3D



모데카이



사악한 광대 제스터에게 빼앗긴 마법 구슬을 되찾고, 위험에 빠진 마법의 나라 오즈를 구하기 위한 도로시와 새로운 친구들의 업그레이드 된 모험을 그린 판타지 뮤지컬 애니메이션 <오즈의 마법사: 돌아온 도로시>가 레전드 명작 『오즈의 마법사』 원작 도서 출판 115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2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돌아온 도로시>는 영화, 뮤지컬, TV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탄탄한 원작을 바탕으로 도로시가 마법의 나라 오즈로 돌아와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 떠나는 여정에서 거치게 되는 사탕 마을, 도자기 왕국, 말하는 나무들의 숲 등 오즈 속 새로운 장소와 색다른 캐릭터들이 등장, 보다 업그레이드 된 모험과 스토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스폰지밥’과 친구들이 벌이는 모험을 그린 3D 애니메이션 <스폰지밥3D>는 TV 시리즈에서 16년간 고수했던 2D 캐릭터에 3D 효과를 적용해 실사와 결합한 최초의 작품이다. 시리즈 사상 최초 3D 애니메이션으로 관객들을 만날 <스폰지밥3D>가 2015년 2월 18일, 설 연휴에 개봉을 확정했다. <스폰지밥3D>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포진해 있는 설 연휴, 오랜 기간 동안 사랑 받아 온 캐릭터로서 자녀를 둔 가족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미 티저 포스터를 공개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던 <스폰지밥3D>는 귀여움 팡팡 터지는 메인 포스터까지 공개해 그 열기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희대의 천재 사기꾼 ‘모데카이’로 완벽 분한 조니 뎀은 개봉 전부터 역대 그의 캐릭터 중 가장 기대되는 캐릭터로 손꼽히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또한 기네스 팰트로도 ‘모데카이’의 아내 ‘조한나’ 역으로 그녀의 필모 사상 가장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할 예정이다. 이를 입증하듯 콧수염을 달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기네스 팰트로의 모습은 만인의 연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데카이’의 수상한 아내로 완벽 변신에 성공한 그녀의 모습을 기대케 한다.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 이완 맥그리거는 영국 안보부의 특수요원이자 ‘모데카이’의 의뢰인 ‘마트랜드’ 역으로 강한 카리스마를 뽐내며 영화의 기대감을 배가시킨다. 시선을 사로잡는 개성 넘치는 3인 3색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한 영화 <모데카이>는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이 선사하는 새해 첫 케이퍼 무비로 전설의 그림을 차지하기 위한 기상천외한 한탕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설날 조카 전쟁 대응법 : 전통놀이

글 김태호 기자

설 전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린다. 문을 열었다. 그들이 무더기로 왔다. 그들은 벽에 낙서하고 나의 사랑스러운 태블릿을 발로 짓밟아 액정을 깨뜨리고 실로폰 채로 내 머리를 때리는 바로 나의 사랑스러운 조카들이다. 일단 급하게 내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액정을 교체한 태블릿 PC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구매한 한정판 피규어를 짹짹 숨긴다.

탕! 탕! 탕! “문 열어!!”

철컹! 철컹!

탕! 탕! 탕!

나의 사랑스러운 보물들을 모두 숨긴 후, 문을 열어주며 나는 생각한다.

‘아~ 이번 설날은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중 태블릿을 조심스레 꺼내어 '타요타요'를 넣어줄까 하지만 문득 작년 추석이 떠오른다. 좋은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3개월 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게임머니를 고작 하트 구매하는데 다 써버리고, 우리 회사 국장님 및 거래처 분들에게 게임 초대 메시지를 마구 날린 적이 있었다. 조카의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보니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다.

이때 나의 큰 조카가 자신이 모아 놓은 거라면서 고무 판때기를 꺼낸다. 조카 말로는 이게 딱지라고 한다. ‘딱지? 나도 딱지 많이 쳐봤는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려 본다. ‘공책과 신문을 이용해 딱지를 만들고 그 딱지를 강화하기 위해, 차로에 딱지를 올려놓고 자동차가 그 딱지를 밟아주기를 웅크리고 앉아 기다렸었지. 그래! 어차피 할머니께서도 편찮으셔서 애들까지 뛰면 정신없을 텐데... 이번 설에는 내가 조카와 놀아주자!’

조카들과 같이 딱지를 치기로 한다. 조카에게 500원을 주고 딱지 5개를 사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자기가 딱지를 개당 500원에 사서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나 참... 그래 어차피 힘은 내가 더 세니깐 내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나는 결국 500원에 딱지 2개를 샀다. 그리고 이 녀석들의 딱지를 모두 따버려서 지난 추석의 복수를 하겠다 마음먹는다.



딱지치기

추천 인원수: 3명

추천 연령대: 8~11세

실내 놀이 가능 여부: 0

팁: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기 전에 “진판? 가판?”이라고 묻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진판이지”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진판은 진짜로 이기면 갖는 것이고 가판은 이겨도 승리만 만끽하고 딱지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에 사용하는 딱지다. 고무로 되어 있고 바닥이 판판해서 생각처럼 잘 넘어가지 않는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이 녀석들은 어찌 이리 잘 넘기는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딱지 1개를 잃고 마지막 남은 딱지 1개로 복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때 어머니께서 딱지 치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고 하신다. 조카에게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딱지 1개를 돌려주었다. 딱지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어머니 말씀에 작년 조카들이 놔두고 간 팽이를 꺼낸다. 이 팽이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일명 '탑 블레이드' 팽이이다.



팽이 싸움

추천 인원수: 3명

추천 연령대: 6~11세

실내 놀이 가능 여부: 0

팁: 테두리에 턱이 없는 간이 밥상 위에서 게임을 한다. 밥상에서 떨어진 팽이는 진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밥상 크기에 따라 난이도는 달라진다.

열심히 팽이 싸움을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또 들려온다. 다른 조카들이 놀러 왔다. 이 조카 두 무리는 흥이 난 나머지 방안에서 뛰기 시작한다. 이런! 이러다가는 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밖에 나가서 제기를 차자고 한다

집에 구멍 난 양말과 동전, 고무줄 그리고 비닐봉지를 이용해 내 조카와 제기를 만든다. 조카들이 가위질을 좋아하니 비닐봉지를 길게 자르도록 해서 제기 살을 만들게 시킨다. 이렇게 급조로 만든 수제 제기를 들고 놀이터로 나간다. 아이들이 직접 제기 만들기에 참여했으므로 그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 놀이에 대한 집중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제기차기

추천 인원수 : 3명

추천 연령대 : 6~11세

실내 놀이 가능 여부 : X

팁 : 종이 상자를 네모 나게 10개를 오려서 칸마다 1부터 10까지 적는다. 아이들에게 10개의 카드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한 후,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제기를 차면 이기는 것으로 한다. 제기를 잘 차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용하면 뽑기의 재미와 제기를 잘 차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이들과 씩씩하게 놀다 보니 어느덧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씩씩해진 아이들과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며 집에 가니 뜨끈한 할머니 표 떡만두국이 끓여져 있다. 조카들도 배가 고팠는지 열심히 먹는다. 제기차기의 체력소모가 크긴 하다. 나는 친척들과 저녁 식사 겸 담소를 나누고 조카들은 다행히 스스로 공기놀이를 한다.



공기놀이

추천 인원수 : 3~5명

추천 연령대 : 9세 이상

실내 놀이 가능 여부 : O

팁 : 아이들의 손 크기에 따라서 공기 개수를 정한다.

술과 함께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 10시... 우르르 광광!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가 보니, 나의 매끈한 27인치 풀HD 3D 모니터가 책상에서 떨어져 처참한 모습으로 꼬꾸라져 있었다. 안 되겠다 싶어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깬다. 그리고 이불 한 가운데에 핸드폰 플래시를 켜놓고 불을 끈다. 그림자놀이를 하려는 것이다. 손으로 강아지, 달팽이, 새 등을 만들어 가면서 무엇을 만든 것인지 아이들에게 맞춰보라고 문제를 낸다. 그러면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맞춘다.



그림자 놀이

추천 인원수 : 2~6명

추천 연령대 : 3~9세

실내 놀이 가능 여부 : O

팁 : 그림자를 이용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다.

경쟁에서 밀린 아이들은 흥미를 잃었는지 불이 꺼진 포근한 이불 위에서 하나둘 말쑤꾸러기에서 천사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하나 둘씩 잠이 드니 남은 아이들도 따라 잠이 들어 이렇게 이번 설 위기를 넘긴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아이들 맞춤형'으로 대응하면, 아이들의 놀이 집중도를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번 설에는 아이들에게 '뽀로로'만 틀어주지 말고 아이들과 전통놀이를 하며 즐거운 설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설날에 가볼만한 수도권 나들이 장소

즐거운 설날 연휴가 코 앞에 다가왔다. 특히 이번 연휴는 최소 5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나 다름 없다. 친지들과 차례를 지내고 이야기 꽃을 피우는 것도 단 하루면 충분하다. 나머지 연휴기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연휴를 더욱 알차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가볼만한 곳을 정리하려 한다. 오늘 소개할 곳은 필자가 직접 다녀온 곳이니 더욱 믿음이 갈 것이다. 참고하여 뜻깊은 명절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면서 설날 수도권에 가볼만한 곳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글 남상열 기자



1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최근 인천에 핫한 나들이 장소가 생겨났다. 바로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이다.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 전체를 동화처럼 꾸며놓은 곳이다. 대로 양옆으로 동화마을이 꾸며져 있고, 작은 골목골목 또 다른 동화가 펼쳐져 있어서 찾아다니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또 도로시 길, 빨간모자 길 등 각각의 길이 하나의 테마로 꾸며져 있어서 볼거리가 더욱 풍성하다. 가족나들이 혹은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로 추천해 드리며, 출사지로도 이만한 곳이 없다.

교통 1호선 인천역 하차

주변 가볼만한 곳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인천아트플랫폼, 월미공원 등



2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어릴 적 용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매달 연재되었던 보물섬을 샀던 기억이 아련하다. 그런 아련한 추억에 빠지고 싶다면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박물관을 추천한다. 입장료는 유료와 무료로 나뉘는데 만화박물관 전체를 구석구석 관람하려면 유료입장을 권장한다. 옛 만화가게를 재현해 놓은 ‘땡이네 만화가게’, ‘꺼봉이 신물 가판대’ 등은 동심으로 돌아가기 충분하고, 4층에 있는 만화체험전시관에서는 만화를 장르별로 감상하며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1층에는 상상놀이터 체험마당이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갈 수도 있다.

교통 7호선 삼산체육관 5번출구 하차

주변 가볼만한 곳 아인스월드, 야인시대캠핑장, 로보파크 외



3 광명 가학산 동굴

수도권 유일의 동굴관광지인 가학산동굴의 인기는 지금껏 식을 줄 모른다. 일제시대 약탈의 현장이자 근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곳은 광부들의 땀과 애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입장료는 무료인 대신에 대기 번호표를 받고 다음 입장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동굴로 들어서는 순간 으스스한 느낌이 감돈다. 광명 가학산 동굴은 항상 12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름철 휴가지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해설사와 함께 동굴 속을 걷다보면 여러 유적물도 볼 수 있고, 또 시간이 맞으면 각종 문화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교통 광명ktx역 6번 게이트에서 7-1번 버스 탑승

주변 가볼만한 곳 가학산 산책로, 광명스피돔 외



4 의왕 철도박물관

아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기차. 경기도 의왕시에는 거대한 기차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철도박물관이 있다. 대규모 운송시장이자 국민의 생활수단인 철도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인식시키조자 설립된 철도박물관은 입장료가 500원으로 무척 저렴하다. 먼저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철도에 관한 모든 변화에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별도로 열차운행 체험실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열차를 운행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야외 전시관에는 옛 비둘기호와 통일호 객차에 들어갈 수 있고, 우등형 전기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을 개방하여 직접 운전대를 만져볼 수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사용되었던 ‘대통령 전용객차’는 이곳 철도박물관의 백미이다.

교통 1호선 의왕역 하차

주변 가볼만한 곳 의왕조류생태박물관, 의왕자연학습공원, 청송호수 외



5 안산 누에섬

날씨가 허락해 준다면 안산 누에섬에서 자연을 만끽하는건 어떨까? 마치 누에처럼 생겼다 하여 누에섬이란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하는데, 썰물 때가 되면 누에섬으로 통하는 길이 열려 더욱 가깝게 마주할 수 있다. 누에섬의 랜드마크는 3개의 풍력발전기이다. 특히 일몰 시간대에 바라보는 모습이 장관이라 실제로 사진작가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또 대부해솔길을 따라 누에섬 전망대에도 갈 수 있고, 사륜오토바이(ATV)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도 꼭 둘러보자

교통 123번 시내버스 탑승 후 탄도 정류장 하차
주변 가볼만한 곳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제부도, 전곡항 외

6 수원 화성행궁

이번에 소개하는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야말로 설날 때 가장 가볼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된다. 210여년 전에 축조된 화성은 가장 근대적인 규모와 기능을 갖추고 있어 명절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많이 찾는 곳이다. 우선 수원화성으로 입장하기 전에 화성행궁 성벽을 따라 걷는 것을 추천한다. 한 바퀴 일주하는데 약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인데, 각종 문화유산도 볼 수 있고 수원시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도 종종 나타난다. 또 수원화성에서는 옛 정조대왕의 처소를 재현한 곳도 볼 수 있고, 사도세자의 뒤주체험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의 동반해설을 받을 수도 있다.

교통 1호선 수원역 하차, 버스 장안공원 정류장 하차
주변 가볼만한 곳 지동벽화마을, 행궁동 벽화마을, 지동시장 외



7 용인 와우정사

설날을 맞아 고즈넉한 사찰에 간다면 용인 와우정사를 추천한다. 대한불교 열반종의 총본산으로 1970년 실향민인 해월 삼장법사가 민족화합의 염원을 담아 세운 사찰로서, 연화산의 48개의 봉우리가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특히 와우정사는 많은 볼거리로 감탄을 하게 되는데, 입구에 있는 8m 크기의 불두, 청동미륵반가유상, 오백나한 불상, 부처님이 누워있는 열반전 등 볼거리가 즐비하다. 또 태국 외에 수많은 나라의 3,000여 점의 불상도 봉안되어 있어 인상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설날 새해를 맞아 작은 소원탑 하나 쌓고 오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하다.

교통 용인공용버스터미널 하차
주변 가볼만한 곳 처인성 외





8 일산 주렁주렁 애니멀 테마파크

국내 최초 실내형 동물체험 테마파크인 주렁주렁 애니멀 테마파크가 최근 엄마들 사이에 입수문이 자자하다. 일산 빅마켓 킨텍스점 지하 1층에 위치한 주렁주렁 애니멀 테마파크에서는 주렁펫샵에서 귀여운 동물들을 볼 수 있고, 교감체험 시간에 사막여우와 함께 포토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 또 사막존, 정글존, 바다존 등 여러 테마가 준비되어 있어서 체험프로그램으로서 이보다 좋은 곳이 없을듯 하다. 120여종 1천마리 동물과 함께 교감도 할 수 있고 인성교육은 물론 잊을 수 없는 추억도 쌓게 될 것이다.

교통 3호선 주엽역 하차, 버스 원마운트 정류장 하차
주변 가볼만한 곳 호수공원, 일산 킨텍스, 원마운트 외

9 김포 함상공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항 부두에 조성되어 있는 김포 함상공원은 우리나라 해군의 초계함으로서 2006년에 퇴역한 운봉함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다. 우선 운봉함 내부로 들어가면 운봉함의 제원과 구조 및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실제 선실의 내부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상갑판으로 올라가면 조타실에서 운항체험도 가능하고, 지휘상황실이었던 전탐실도 둘러볼 수 있다. 또 야외공원에는 수륙양용차, 해상 초계기, 단정 등을 직접 보고 올라탈 수 있어 특히 남자 아이들과 함께 가면 참 좋아할 만한 곳이다. 함상공원을 둘러본 뒤, 대명항 수산물직판장에 가서 생기는 모습도 살펴보자.

교통 버스 김포 대명항 정류장 하차
주변 가볼만한 곳 대명항 수산시장, 초지진, 덕포진 외



10 구리 고구려 대장간마을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지로 유명세를 탔던 고구려 대장간 마을은 특별한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실제로 태왕사신기의 모든 촬영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옛 태왕사신기를 즐겨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곳이다. 드라마에 나왔던 경당, 거물촌, 대장간 등 반가운 장소가 보이고, 몇 군데의 포토스팟이 있어서 특별한 사진도 남길 수 있다. 또 대장간 마을 둘레로는 사진과 벽화가 꾸며져 있어 고구려의 역사와 성장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입구에는 '아차산 유적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 아차산의 고구려 유물인 토기류와 철기류, 자료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약 100m 떨어져 있는 아차산 큰바위얼굴에도 올라가 보자

교통 버스 우미내검문소.고구려대장간 마을 정류장 하차
주변 가볼만한 곳 구리시민공원, 아차산 큰바위얼굴 외

[경제] 종신보험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떼는 보험사는?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생명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종신보험(주계약)을 대상으로 사업비 부가 수준을 조사한 결과,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떼는 보험사는 “메트라이프, AIA, 현대라이프” 이고,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떼는 보험사는 “하나, ING, 농협”이며, 인터넷 생보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가장 적게 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비 부가수준을 나타내는 종신보험의 보험료지수가 일반 생보사들이 평균 133.04%인데 비해 인터넷 생보사는 115.25%로 17.7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종신보험 가입 시 인터넷 생보사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향후 인터넷 생보사가 가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많은 소비자들은 가장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이 경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가급적 보장이 크고 사업비가 적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소원 발표에 따르면, 보험료지수가 높은 보험사는 메트라이프 145.77%, AIA 142.50%, 현대라이프 140.43% 이고, 반대로 보험료지수가 낮은 보험사는 하나 121.70%, ING 124.20%, 농협 125.00%이며, 인터넷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115.25% 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 사업비를 많이/저격 떼는 보험사 현황

(보험료지수 단위: %)

사업비를 많이 떼는 보험사(5개사)		중간 수준으로 떼는 보험사(12개사)				적게 떼는 보험사(5개사)	
메트라이프	145.77	한화	129.95	교보	130.17	교보라이프플래닛*	115.25
AIA	142.50	KDB	130.58	흥국	130.75	하나	121.70
현대라이프	140.43	신한	131.24	ACE	131.42	ING	124.20
KB	139.30	동양	131.51	PCA	132.50	농협	125.00
동부	137.58	알리안츠	134.85	미래에셋	134.95	푸르덴셜	127.80
		우리아비바	135.06	삼성	136.66		

※ 생보협회 공식실에 등록된 179개 종신보험(주계약)의 보험료지수를 각 사별로 평균한 것임

* 인터넷보험사

사업비를 가장 많이/적게 떼는 종신보험(예시)

구분	보험사	보험명칭	보험료지수	사업비율 *
사업비를 가장 많이 떼는 종신보험 (2종)	메트라이프	(무)Life Cycle 종신보험-2형	167.90%	40.44%
	PCA	(무) PCA 매직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II	149.80%	33.24%
사업비를 가장 적게 떼는 종신보험 (2종)	교보라이프플래닛	(무)라이프플래닛 e종신보험(일반형)	113.40%	11.82%
	하나	(무)건강한 종신보험(1.1)	114.10%	12.36%

※ 사업비율 :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험료지수를 알기 쉽게 환산

【(보험료지수 - 100) / 보험료지수】 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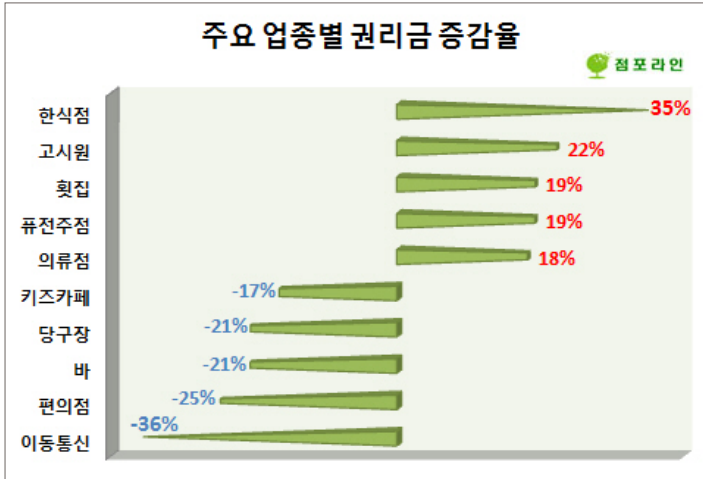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업비가 무엇이고 더구나 보험료지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하여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 시 사업비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도 보험사로 하여금 사업비 부가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금소원 오세현 국장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보험상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사업비 부가는 지양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보험상품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 내용을 상품안내장, 상품설명서 등에 알기 쉽게 기재하고 설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비를 가장 많이 떼는 종신보험은 메트라이프의 (무) Life Cycle 종신보험-2형으로 보험료지수가 167.90%이고, 사업비를 가장 적게 떼는 종신보험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무)라이프플래닛종신보험(일반형)으로 보험료지수가 113.40%로, 두 보험은 54.50%의 보험료지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지수는 100을 최저로 하여 지수가 낮을수록 사업비가 적어 보험료가 저렴하고, 지수가 높을수록 사업비가 많아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지수가 150%일 경우 소비자가 보험료 15만 원을 내면 이 가운데 10만 원이 보험금 지급의 재원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5만 원이 사업비가 되어 보험료의 3분의 1이 보험사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료지수 차이 만큼의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게 되므로 보장금액이 동일할 경우 가급적 사업비가 적은(=보험료지수가 낮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2009년보다 권리금 더 떨어진 업종은?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비해서도 권리금이 더 떨어진 업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간 영업 여건이 급변한 데다 내수소비 침체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1만1293개를 주요 업종별(30종)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12개 업종의 권리금이 2009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대비 지난해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이동통신 업종이었다. 이동통신 업종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국내 이동통신 업체와 휴대폰 제조사의 성장세에 힘입어 동반 활황을 누렸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야 하는 업종 특성 상 이동통신 업종은 지역을 불문하고 해당지역 내 가장 유명한 상권에서도 핵심 요지에 자리한 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덕분에 2009년 당시만 해도 이동통신 업종 점포의 권리금은 3.3㎡당 602만원을 기록, 조사 대상인 30개 업종 중 4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점차 휴대폰 판매의 헤게모니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오픈마켓과 휴대폰 커뮤니티 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판매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 여건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윤을 남기면서 휴대폰을 팔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점포 수준도 악화된 것은 당연한 수순. 지난해 이동통신 업종의 점포 권리금은 3.3㎡당 387만원을 기록,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당시 권리금의 64.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조금만 신경써서 관찰해보면 유명상권 내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휴대폰 매장이 점차 주춧돌이 인근으로 물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업종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떨어진 것은 편의점이었다. 편의점 업종은 특히 불황에 강한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창업자들에게 인기를 누렸고 2009년 당시 권리금도 3.3㎡당 459만원으로 30개 업종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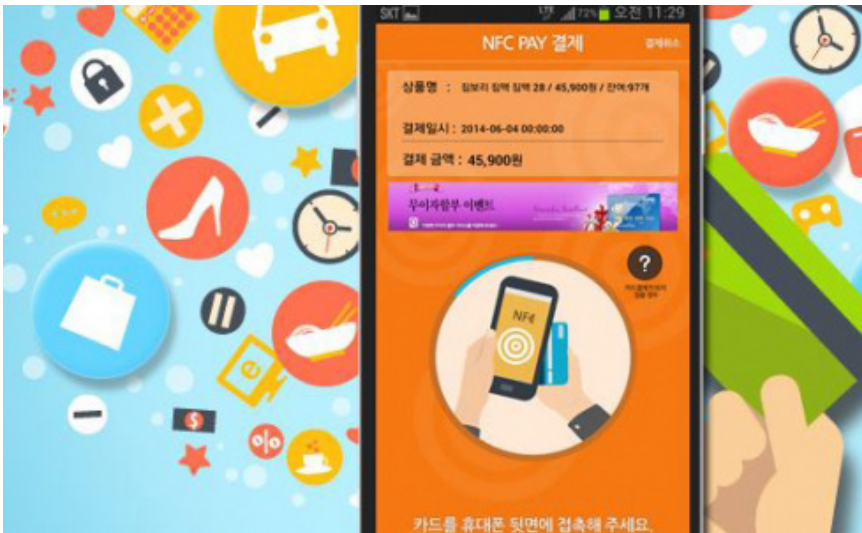
그러나 이후 편의점 창업자가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기업 계열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새로 생겨나면서 영업 여건이 악화됐다. 여기에 일부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계약을 강요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갑의 횡포’를 자행하면서 업종 자체의 이미지가 흐려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편의점 매물의 권리금은 2009년 대비 24.8%(114만원) 하락한 3.3㎡당 345만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어 주점 중 한 종류인 바(bar) 업종 권리금이 2009년 213만원에서 2014년 169만원으로 20.63%(44만원), 당구장 업종 권리금이 126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60%(26만원), 퓨전음식점이 373만원에서 316만원으로 15.2%(56만원)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조사대상 30개 업종 중 18개 업종은 2009년에 비해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업종 중 권리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은 한식점이었다. 한식점 권리금은 2009년 3.3㎡당 238만원에서 2014년 3.3㎡당 322만원으로 34.9%(83만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처럼 한식점 권리금이 상승한 것은 업종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직장을 나온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진 바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별다른 기술 없이도 창업 가능한 한식점을 선택하면서 수요가 증가, 권리금 상승세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고시원 업종 권리금이 3.3㎡당 175만원에서 213만원으로 22.1%(38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고시원은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창업 및 시설유지, 모객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2010년 들어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의류점 업종이 증가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 의류점 권리금은 2009년 3.3㎡당 526만원에서 지난해 621만원으로 95만원(증가율 18.1%) 올라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의류점 업종은 국제 금융위기 직후 압구정 로데오 패션거리에 무권리 점포가 속출하는 등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온 몸으로 맞았으나 이후 의류소비 주기를 연 단위에서 개월 단위로 줄이는 전략, 점포 수 확대보다는 유명 상권 내 점포를 빌려 고객에 확실하게 어필하는 전략 등을 바탕으로 5년 만에 피해를 만회했다는 평가다. 김창환 대표는 “이 밖에 권리금이 오른 업종을 보면 고깃집, 치킨호프 매장,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꾸준히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고 신선한 서비스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곳들”이라며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현재의 침체 상황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와 니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IT/금융] 주목받는 핀테크 Fintech

최근 핀테크 (Fintech)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 (finance)과 기술 (Technology)을 결합한 합성어로 모바일결제와 송금, 클라우드펀딩, 재정관리 등 금융과 관련한 서비스와 결합된 각종 신기술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핀테크가 최근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달궂어지면서 틈에 박힌 금융서비스들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와 LGU+의 페이나우플러스 등 모바일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있고, 해외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인 페이팔과 알리페이 역시 국내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핀테크 기업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 금융의 허브인 영국의 경우 테크시티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집중 육성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 금융의 상징인 영국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연구소를 운영하며, 인큐베이터와 액셀레이터 설립을 통해 적극적인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컨설팅 전문업체 액센츄어에 따르면 핀테크 벤처에 대한 국제 투자는 2008년 1조원에서 5년 만에 3조원 규모까지 증가했으며, 핀테크 투자는 계속 성장하여 2018년에는 8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특히 대표적인 IT강국이라 하지만 국내 금융관련 규제에 막혀 성장할 수 없는 사업모델로 인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인인증서 폐지와 액티브엑스 폐지 등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간편결제의 활성화 등 핀테크 관련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와 IT금융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금융업법과 여신전문법 등 다양한 규제를 통과하여야 하고, 엄격한 자본관리 규제도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와 규정들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핀테크 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IT와 결합된 금융모델의 아이디어를 가진다 하더라도 자본이 넉넉지 않은 기업이라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사업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각박한 국내 시장에서도 핀테크 스타트업을 하는 업체는 간편송금서비스를 개발한 비바리퍼블리카와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중인 코빗, NFC 간편결제서비스를 개발한 한국NFC가 대표적이다.

특히 한국NFC(대표이사 황승익)의 경우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활용하여 기존에 출시된 카카오페이나 페이나우플러스와 다르게 신용 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있다.

'NFC간편결제'는 휴대폰의 NFC기능이 카드단말기가 되어 모바일쇼핑 결제 시 후불식 교통카드를 버스요금 지불 하듯 휴대폰 뒷면에 접촉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결제서비스로, 서비스 가입의 복잡한 절차와 신용카드 정보를 서버와 휴대폰에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특히 휴대폰과 후불식 교통카드의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킹, 휴대폰분실 등과 같은 보안문제로 부터 더욱 안전하다 평가 받고 있다.

2014년 모바일쇼핑 시장의 예상매출은 10조원에 달한다, 삼성, LGCNS 등 대기업들조차 탐을 내는 국내 모바일결제 시장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특히 해외 전자결제 서비스인 페이팔과 알리페이조차 국내 시장진입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정부의 규제개혁과 맞물려 좋은 결과를 낼지 관심을 받고 있다.

[IT] 사운드코닉1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가 대세를 이루면서 더욱 강력한 기능을 탑재한 스피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LED조명 기능, 알람기능은 물론 충전 기능 까지... 하지만 스피커라 함은 뭐니 뭐니 해도 사운드 자체의 중요성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강력한 사운드는 그대로 보존한 채, 디자인과 스타일에 남다른 감각을 부여한 고품격 프리미엄 블루투스 스피커가 최근 화제다. 리스토레이션랩에서 출시된 사운드코닉1은 정교하게 설계된 알루미늄 디자인에 선명하고 웅장한 사운드로 인해 유저들에게 진한 감동마저 주기에 충분하다. 사운드코닉1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붉은 계통의 LED조명과 터치 인터페이스의 조화가 적용돼 직관적인 오디오 기능의 조작이 가능하다. 또 제품 하단에는 고성능 사운드 드라이버와 지능형 베이스 우퍼 시스템이 있어 더욱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블루투스 접속을 해제하여도 별도의 마이크로 SD카드 단자가 있어 SD카드 내에 내장된 음원을 플레이할 수 있다. NFC(근거리 통신모듈)를 탑재하여 NFC가 지원되는 스마트폰과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동작이 가능하다. 사운드코닉1은 비교적 아담한 크기로 휴대성이 좋아 캠핑이나 나들이 장소에서도 안성맞춤이다. 3시간 완충 후 1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레저용 스피커로도 손색이 없다는 점을 대신해 준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력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사운드코닉1. 잡다한 기능은 배제한 채, 오로지 사운드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에만 고집한 이 제품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바이다.



[문화] 키덜트 & 하비 엑스포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키덜트 족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프라모델, RC, 게임에서부터 만화, 디지털 액세서리까지 그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무수히 많다.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키덜트 & 하비엑스포가 성대하게 열려 직접 찾아가 보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키덜트 산업의 주목과 함께, 국내 취미생활 및 수집, 운전, 조립, 기타 재미를 추구하는 어른들의 고가화된 장난감 등 관련제품 관람 및 구매기회 제공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의의를 둔 전시회였다. 비교적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관람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직접 찾은 부모님, 사랑하는 연인 때로는 친구끼리 찾은 학생들도 눈에 띄게 볼 수 있었다. 전시회장으로 들어서면 토이리퍼블릭 부스가 눈에 띈다.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들리돌 인형이 가득차 있었고, 관람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다. 인자해 보이는 깔깔수녀님, 구제관절인형, 스타워즈 대형 피규어 등 관람객들에게 무수히 많은 볼거리도 제공하는 반면에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대형 보드게임 존도 마련되어 있었다. 또 2015 키덜트 & 하비엑스포를 기념해 TAMIYA MINI 4WD 대회도 열렸는데 역시 세계적으로 명성이 대단한 대회다웠다. 관람을 시작할 지 두 시간이 지났을까? 출구로 향하는 길에서는 굿스마일 컴퍼니 부스를 만날 수 있었다. 최근 엄청난 마니아층을 확보한 굿스마일 피규어들이 가득차 많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북새통을 이루었다. 또한 토이 리퍼블릭 전시회를 통해 아트토이 신진작가들의 새로운 장도 마련되어 더욱 흐뭇한 전시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이번 코엑스에 이어 8월 13일(목) 부터는 부산 벡스코에서 키덜트 & 하비엑스포가 열린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빌어 바라지 않는다.



* 키덜트(kidult)는 아이의 감성을 소유하고 있는 어른을 말한다.



[리빙] 난방기 가동 후 피부관리 주의사항

동안 피부로 유명한 한 여배우는 피부를 위해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차 안에서 히터를 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추운 날씨로 인해 각 가정은 물론 사무실이나 차 안 등 곳곳에서 난방기 사용이 본격화될 경우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를 위해 히터 사용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밀폐된 환경에서 히터를 장시간 가동할 경우 실내온도를 높이고 건조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약간의 자극에도 피부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유연성과 탄력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잔주름이 쉽게 생기거나 이미 생긴 주름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또한 피부 보호를 위해 피지분비량이 증가하는데 이 때 각질과 피부 노폐물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뾰루지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피부를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적정 습도 유지가 필요하다. 이상적인 실내 습도는 40~60%이지만 난방기를 가동하게 될 경우 실내습도는 10%내외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천연 가습효과를 내주는 식물, 젖은 빨래 등을 이용해 실내 습도를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밀폐된 환경에서 가습만 신경 쓰다 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하루 1~2회 정도 환기를 통해 오염된 실내 공기를 내보내는 것이 좋다.

평소 피부 보습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므로 주 1~2회 정도는 각질제거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 세안 후에는 물기가 마르기 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어야 한다. 이노작용을 하는 커피나 음료 대신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과 함께 충분한 과일, 채소 섭취도 수분관리에 도움이 된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땐 미스트를 이용해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청정선한의원 임태정 원장은 “타고난 피부결도 중요하지만 피부는 주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수시로 변화를 겪게 되므로 꾸준한 피부 관리를 통해 피부 노화를 예방해야 한다. 피부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노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피부 관리는 노화가 진행되기 전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긴 상태라면 고전적 한의학 이론에 바탕을 둔 ‘한방성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데, 한방 약실과 침을 이용해 겉으로 드러나는 노화된 피부와 피부 속의 연부조직을 함께 끌어올려 얼굴 처짐과 패임, 주름을 없애고 피부 진피층을 자극해 피부 회복과 재생력을 높여주는 치료이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SBS '하이드 지킬, 나' 공식 홈페이지

[연예] '하지나' 한지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의 여주인공 한지민의 '장하나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여신, 한지민은 그 자체로 주목 받고 있다. 드라마가 전파를 타면서 그녀의 머리 색부터 메이크업, 의상 스타일링까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한지민' 이름 석자만 입력해도 '머리색', '메이크업', '코트', '백팩', '귀걸이' 등 그녀의 드라마 속 스타일링에 대한 관련 검색어들이 줄지어 나타난다. 이는 드라마 속 한지민이 맡은 장하나 캐릭터의 특색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출연작품, 화보, 광고 그리고 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쌓여진 한지민에 대한 대중의 '워너비' 이미지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이드 지킬, 나'에서 현빈(구서진, 로빈 역)과의 러브라인이 시작되면서 한지민의 장하나 스타일링 역시 본격적으로 선보여지고 있다. 1회부터 4회까지 한가지 의상으로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장하나의 스타일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극중 장 하나는 더플코트에 백팩을 매치, 청순하면서도 감쪽한 면모를 과시하는가 하면 여성스러우면서 편안한 느낌의 니트 톱을 연출하여 컨템포러리 페미니 룩을 완성했다. 의상과 함께 헤어 칼라와 메이크업 또한 주목 받고 있다. 우선 헤어는 트렌디한 버건디 컬러로 '태양의 서커스' 출신의 서커스 단장 장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피부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맑은 톤에 핑크스머지 립으로 포인트를 잡았다. 특히 한지민이 극중 사용한 립스틱은 방송 이후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시품절 되기도 하며 '장하나 스타일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증했다. 또한 한지민은 해당 드라마가 방송을 타기 전부터 주얼리, 뷰티, 의류브랜드 등의 광고 모델로 선정되며 높은 화제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이에 한지민 측 관계자는 "앞으로 드라마 상에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 명의 여자와 두 가지 인격을 지닌 남자의 본격적인 멜로를 예고하며 시청자의 가슴을 설레게 할 SBS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는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에 SBS에서 방송된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보드톡스 톨



-주식 정보편 (미생 패러디)-



밥부장 45세

밥 축내는 밥부장이지만 가끔은 큰 건수를 터뜨리는 영업44팀의 수장으로 성격이 급하고 불 같아서 버럭부장이라고도 불린다. 밥부장의 입냄새는 숨겨진 핵폭탄급 살인 무기.



빳대리 38세

10년째 만년 대리인 빳대리는 국내 유일의 '빳'가이다. 머리술이 적어 임원진 급으로도 보이지만 마음만은 순수한 중년. 밥부장의 등살과 강그래의 잦은 사고로 인해 현재 머리술은 점점 더 사라져 가는 중이라는데..



강그래 29세

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 강그래는 약간 모자란 듯 보이지만 자기 실속은 다 챙기는 실속파. 학창 시절부터 비비이 외 비트박스로 유명해 밤마다 다른 삶을 사는 이시대를 대표하는 신세대이다.



영업44팀의 회의시간 현재 3시간째 마라톤 회의가 한창이다.



대박 주식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밥부장.



강그래 사원은 주섬주섬 스마트폰을 꺼내 보드톡스를 켜다.

역시
보드톡스ㄱ

보드톡스로 지인들에게
대박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강그래

이 대박정보는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데...

대박정보 공유해염~

한편,
회의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는 강그래를 보고
뱃대리는
강그래를 호출한다.

이 망할놈의
십장생

회의시간에
뭘하는
게토레이~

옥상으로
따라와 수박씨
발라먹을

하아~

강그래
너 할 줄
아는게
뭘라했지?

제2외국어
좀 합니다

베트남어
체코어
한국어
고등어

머지?

참 보기드문
청년일세~

무가 보기
드문 청년이라는
겁니까~

네?

뱃대리에게
잔소리를 듣고 답답한
강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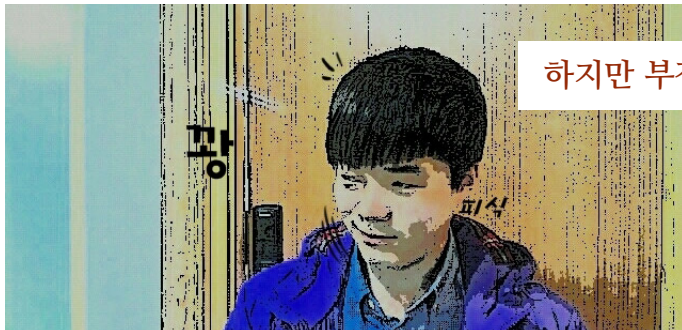
하지만 곧 그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치는데...



주식으로 돈을 잃고
속이 상한 밥부장은
강그레가 의심스러워
그를 호출한다.



다짜고짜 으박지르는 밥부장.
강그레는 그저 보드톡스를 켜 놓은 죄!
강그레의 하루는 그렇게 험난하게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부장실에서 나와 썩소를 날리는 강그레 사원

⋮

그렇다!
강그레는 대박 주식 공유의 댓가로
죽을때까지 술값 걱정 없이
술을 마셨다고..



제작
지원

BOARD TALK
BOTALKS

2015.03 Coming Soon

